



발행인 황덕순
편집인 김유빈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3
FAX 044-287-6089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2021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2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2021년은 코로나19발 고용충격으로부터 노동시장이 건조한 회복세를 보인 시기였다. 취업자 수가 증가로 돌아선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60만 명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취업자 감소분을 20만 명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월대비 계절조정계열로도 8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고용충격 발생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에 대비해서는 99.9%까지 회복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의 심화, 글로벌 경제 및 내수시장 위축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22년 취업자 수는 24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하반기 고용 상황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회복에 있어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를 보인 2021년의 기저영향으로 2022년 상반기에 367천 명, 하반기에는 119천 명 증가하는 상고하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I. 2021년 노동시장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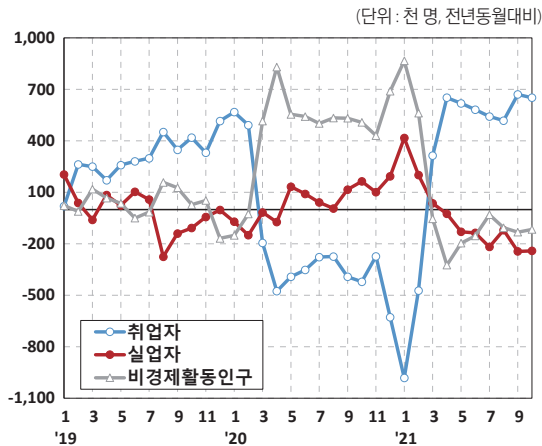
2021년은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의 완전한 회복세가 나타난 시기였다. 2분기 이후 지난해 동 분기 감소분을 약 20만 명가량 상회하는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도 서서히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1년 3분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약 58만 명 증가했고 1~10월 평균으로 약 31만 명 늘었다. 고용률 역시 1~10월 평균 0.3%p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0.2%p 떨어졌다.

계절조정 전월대비 수치들을 보아도 노동시장 회복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는 5월 이후 증가폭은 줄었으나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전월대비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의 고용 회복세는 다양한 지표에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대면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눈에 띈다. 공공일자리 관련 직접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사회서비스업 역시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건설업은 업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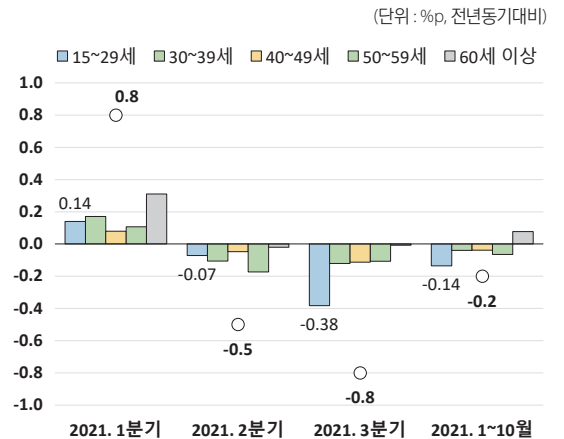
2분기 이후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60만 명 내외의 증가세 유지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실업률에서 연령대별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증감



자료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회복에 따라 고용도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추세적 하락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20년 대면서비스업 고용 감소의 기저로 2021년 상반기에 적어도 수 치상으로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교육서비스업 이외에는 유의미한 고용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서비스업 전체로 보았을 때 기업경기실사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증가하는 등 2020년보다는 업황 및 고용이 양호한 상황이다.

II. 2021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지속적인 실업자 감소

청년 중심의 실업자 감소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실업자도 감소세가 꾸준히 확대되었다. 가장 최근인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4만 1천 명까지 실업자가 감소하였고, 계절조정 실업자 역시 3분기에 전분기대비 19만 3천 명 감소하는 등 어려운 방역 상황 속에서도 실업자 감소가 이어졌다.

실업률의 감소를 연령별로 보면 상반기 이후에는 청년층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청년 실업자는 취업 무경험자에서의 감소와 더불어 도소매, 숙박음식 및 예술·스포츠 등 주로 전직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에서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경제활동참여의 둔화가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님

확장실업률로 보아도 청년층은 3월부터 나타난 감소가 10월까지 이어지고 그 감소세도 강화되고 있다.

그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실업자의 감소와 더불어 잠재경제활동인구 역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청년층 노동시장이 건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분기 이후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었다(표 1 참조).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을 사유별로 보면 올 3분기의 감소폭 축소는 주로 연로 사유의 증가에 기인한다. 연로자는 2분기보다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어 15만 3천 명 증가하였다. 반면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취업준비의 증가폭은 소폭 확대되었고, 쉬었음은 올해 3분기까지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구직단념자의 경우도 올 2분기 3만 5천 명 증가에서 3분기 5천 명 감소로 전환하여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추세적 감소세는 이어지는 등 세부 사유별로 보면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모습도

<표 1>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1~10월
전체	458	-225	-89	32
육아·가사	232	-113	-92	-3
통학	-96	-220	-181	-169
취업준비	64	54	69	61
연로	77	95	153	115
쉬었음	222	-30	-41	42
기타	-40	-12	3	-15
구직단념자	184	35	-5	60

주 : 1)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학원 통학 및 진학준비 사유를 포함함.
2)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및 취업준비 사유를 포함함.

자료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확인되었다.

일시휴직자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26만 5천 명 감소하여 작년 기저분 정도의 변동이 나타났다. 작년 코로나19 3차 확산을 돌아보면 3차 확진자 규모가 1차나 2차 때보다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시휴직자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4차 확산에서도 재확인되어 코로나19의 확산이 일시휴직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관계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2. 청년층과 고령층 위주의 고용 회복

연령별 고용 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층은 고용률 증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졌다. 20대 초반(20~24세) 인구는 감소하고 20대 후반(25~29세) 인구는 증가 중이기 때문에 인구변화의 영향을 받는 취업자 변화보다는 고용률 추이를 기준으로 청년 세부 연령대별 고용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0대 후반 고용률 회복에 비해 20대 초반 고용률 회복 속도가 더 빨랐고 그 폭도 크게 나타났다. 20대 초반 고용률 증가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 고용률 증가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정보통신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위주로 고용 회복이 나타난 반면, 남성은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고용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정보통신업 취업자 증가는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도 뚜렷한 경향이 나타난다.

30대 역시 인구가 약 15만 명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폭에 비해 상반기 이후 취업자 감소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고용률 역시 4월 이후 증가로 전환했다. 성별로는 여성은 30대 초반에서, 남성은 30대 후반에서 고용률 증가가 더 컸으며, 전체적인 고용률 증가폭은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은 30대 초반에서 비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으나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여성은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표 2〉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9년 1~10월	2020년 1~10월	2021년 1~10월
15~29세	인구	-89	-145	-138
	취업자	37	-165	94
	실업률	-0.5	-0.1	-1.0
	고용률	0.8	-1.1	1.7
30대	인구	-103	-143	-147
	취업자	-61	-155	-121
	실업률	-0.1	0.0	-0.1
	고용률	0.2	-0.6	-0.2
40대	인구	-143	-67	-71
	취업자	-164	-158	-41
	실업률	-0.2	0.2	-0.1
	고용률	-0.6	-1.3	0.2
50대	인구	105	16	-8
	취업자	101	-83	42
	실업률	0.0	0.4	-0.3
	고용률	0.3	-1.1	0.6
60세 이상	인구	547	626	659
	취업자	363	388	334
	실업률	0.2	0.2	0.0
	고용률	1.3	1.1	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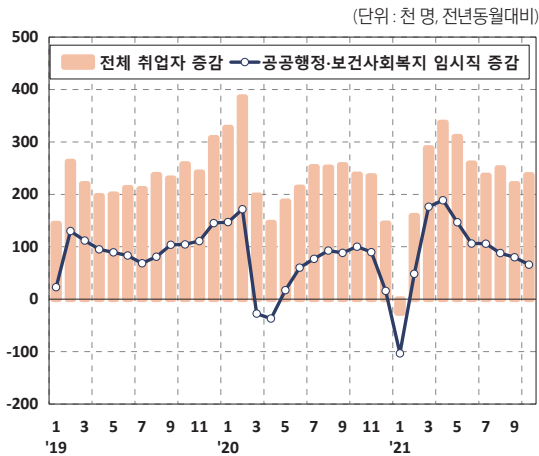
50대에서도 대면·내수 서비스업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교육 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전문과학, 금융보험, 운수창고업 등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운수창고업을 제외하면 해당 산업의 여성고용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성 50대 고용률 증가가 남성 고용률 증가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하며 직접일자리 사업 진행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고령층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된 2020년에도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고령층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진행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면서 2021년 초에는 취업자 증가 규모가 줄어들다가 2분기 이후 사업 재개로 인해 다시 전년 수준을 회복했다. 65세 이상 취업자 중 공공행정·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 종사자가 1월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고용의 증가가 계속됨을 짐작할 수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이 제한되는 30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고용이 증가하는 60대

[그림 3] 6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감 및 공공행정·보건사회 복지서비스업 임시직 종사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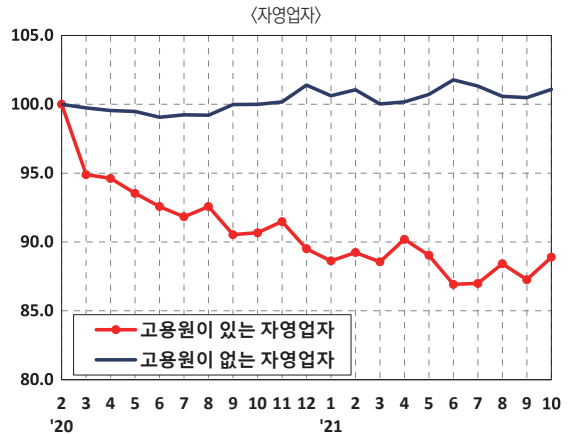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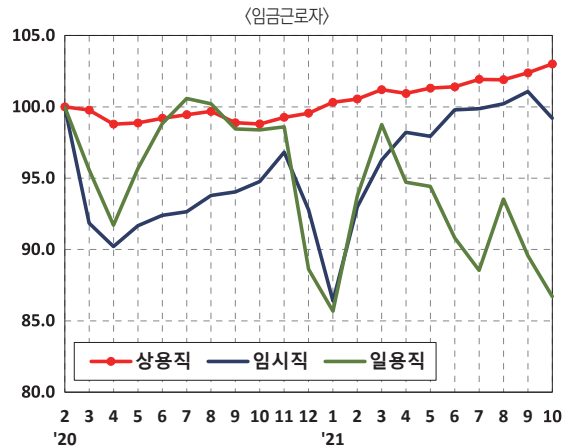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상용직과 임시직 위주의 고용 회복

2020년에는 이례적 수준의 임시직 감소가 있었다.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나타난 수요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직 고용이 줄어든 것이다. 임시직 고용은 2021년 1월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고 2021년 상반기 이후 코로나19 영향 이전 고용 수준을 회복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업 임시직 고용이 크게 증가 중이며, 운수창고업 임시직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자리 사업 영향과 비대면서비스 수요 증가가 임시직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임시직은 지난해 감소분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진하다.

2020년 하반기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던 상용직 고용은 2021년 1분기부터 다시 증가폭을 늘려 3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 이전 수준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 침체는 상용직은 다소 시차가 있게 나타났으나 회복의 시기는 임시직과 큰 차이가 없었다. 양적인 증가와는 다르게 세부 내용은 임시직과 조금 달랐는데, 건설업에서 업황 회복과 함께 큰 규모로 상용직이 증가했다. 운수창고업은 임시직 증가 규모보다 더 큰 상용직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한 운송관련적 증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

[그림 4] 코로나19 확산 이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계절조정계열)



주: 2020년 2월=100.

자료: 통계청, KOSIS.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상용직 고용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크게 증가 중이며, 사회서비스업 부문도 마찬가지다. 상용직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3분기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상용직은 고용 증가폭이 줄었던 것이지, 고용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절조정계열로 보아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일용직은 2020년에 보인 부진을 회복하지 못하고 2021년에도 감소 중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위주로 일용직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상용직과는 달리 건설업 일용직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업황 회복이 지속된다면, 건설업 일용직의 특성상 고용 수치가 자체가 크게 감소하는 일이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면서비스업 일용직 고용의 감소 영향으로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수치는 매우 부

감소했던 임시직 고용의 회복

진하다. 건설 일용직이 크게 증가하던 시기인 1분기에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이후 크게 감소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 상황은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대비된다. 자영자 고용은 양호한 반면, 고용주 고용은 어떤 수치를 보아도 좋지 못하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로 봤을 때, 고용주는 증가와 감소를 일정기간을 두고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동안의 패턴을 반복했다면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주가 증가하는 반등 시기가 크게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고용주는 감소하고 있으며, 다만 그 폭은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고용주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산업은 없다. 상품소비의 온라인화라는 큰 흐름에서 도소매업 고용주가 늘어날 계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면서비스업에서의 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자영자 고용은 장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기 하강기에는 주로 감소폭이 줄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가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면 감소폭이 늘거나 감소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에는 이러한 양상을 주로 노동시장 내에서 자영자가 거시경제 변화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왔다. 코로나19 영향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2월 이후에도 자영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시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나타날 때의 자영자 고용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운송관련 자영자가 큰 규모로 늘었고 건설업 자영자도 크게 늘었다. 3분기 들어 기타개인서비스업 자영자가 크게 줄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증가했던 고용의 기저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4. 하반기 제조업 취업자 개선세 약화

지난 몇 년간 취업자 감소 추세였던 제조업은 올 상반기 들어 경기회복과 업황 개선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듯했으나 하반기 중 다시 취업자가 감소했다. [그림 5]의 제조업 계절조정계열 추이를 보면 상반기에 장기

추세를 웃돌던 제조업 취업자가 하반기에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다만, 경찰 취업자 감소와는 달리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2021년에 증가를 지속했다(그림 6 참조). 각 통계자료가 조사기간, 조사대상, 포괄 범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용 증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 간에 취업자 변동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고용 상황을 평가할 때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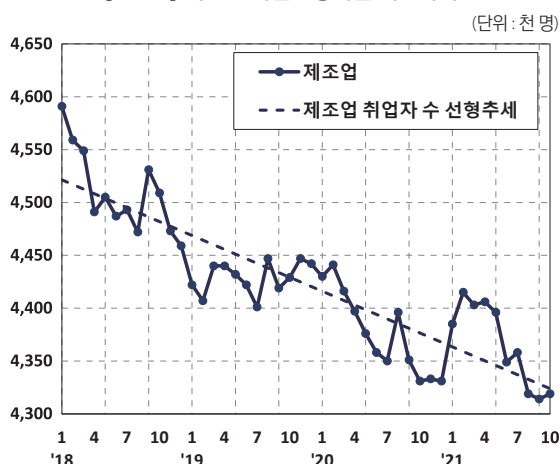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일차 전지 및 축전지, 가정용 기기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고용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생산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월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갔고, 컴퓨터 수출도 증가했다.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업황이 연중 호황인 가운데 고용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회복으로 제조·건설 등 전방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타기계 제조업 생산이 늘었다.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회복으로 공작기계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기계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기타기계 제조업 업황이 힘입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 종사자 수는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국내외 제조업과 건설경기 회복 추세가 당분간 유지된다면 내년에도 기타기계 제조업의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

고용주 증가, 자영자 감소

하반기 경찰 제조업 취업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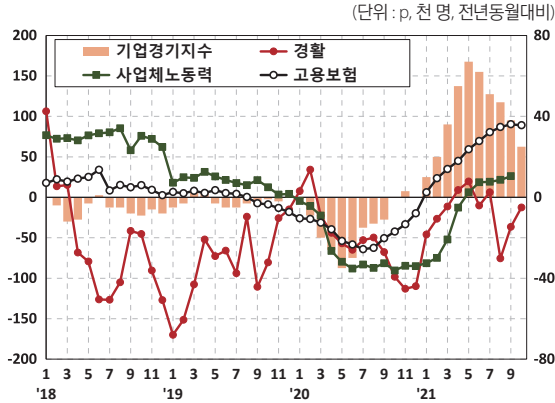
전기장비, 전자부품, 기타기계
제조업 고용 증가세

[그림 5] 제조업 계절조정계열 취업자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6] 제조업 기업경기지수 증감 및 고용지표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ECOS.

한편, 상반기 중 높은 생산 증가율을 기록했던 자동차 제조업은 7월 이후 생산이 둔화되었다. 자동차 수출도 9~10월 중 소폭 감소로 전환됐다. 완성차 업계도 하반기에는 생산, 내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면서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 하반기 자동차 제조업 업황이 10월까지의 고용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아 자동차 제조업 고용은 아직 상반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5. 건설업 고용 증가세 지속

2021년 건설업 고용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경황 취업자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8만 5천 명 증가했고, 7~10월에 8만 1천 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매월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토목 부문 투자가 부진한 반면, 건물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9월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했다. 앞으로 건설투자 부진까지 회복된다면 건설업 고용도 지금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6. 서비스업 고용의 양적 회복

2021년 1~10월 평균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2만 명 증가하였다. 코로나 3차 확산 시기가 반영된 2021년 1~2월을 제외하게 되면 2021년 3월부터 10

월까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평균적으로 45만 5천 명 증가하였다. 2021년 9~10월에는 약 60만 명의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나타나면서 2020년의 취업자 감소폭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2021년 1~10월 평균 취업자는 16만 명 감소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감소폭이다. 종사자 규모별로 비교하면 소매업에 가까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매업에 가까운 5인 이상의 사업체는 취업자 감소폭이 점차 둔화되고 고용이 회복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숙박음식업은 2021년 3월 들어 6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4월 이후 취업자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3~10월 사이 취업자가 월평균 7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숙박음식업의 고용 상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자리잡게 되면서 5인 미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음식점의 고용은 월평균 6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상시적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간규모 이상 음식점 고용은 지난해에 이어 감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업종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에 따라 영업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고용을 늘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향후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중대형 음식점에서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3>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0.11~2021.2	2021.3~2021.6	2021.7~2021.10
도소매업	-194	-162	-134
운수창고업	27	90	138
숙박음식업	-268	12	3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서비스, 사업지원	-46	207	244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28	337	362
예술·여가, 협회·단체, 개인서비스, 가구내고용	-134	-78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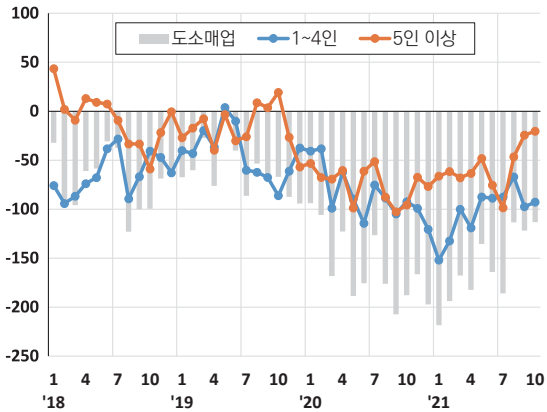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경기 개선이 예상되는
건설업은 2022년에도 고용
증가세 지속 기대

2020년의 취업자 감소폭을
상회하는 취업자 증가

[그림 7] 종사자 규모별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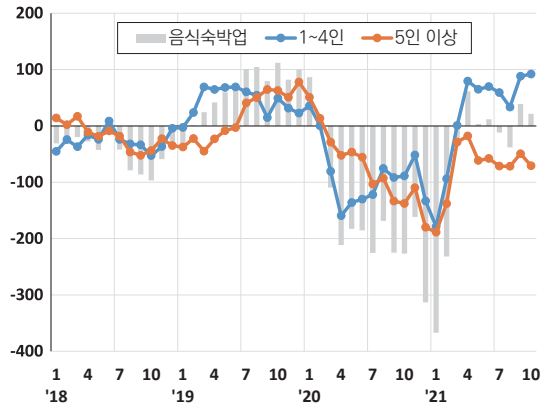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8] 종사자 규모별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운수창고업은 서비스 업종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취업자 증가가 나타난 업종이다. 2019년까지 국내의 여행수요 및 해외지구 등의 운송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배달노동자가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월 4만~5만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 취업자가 최근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물류대란, 여전히 불투명한 해외이동 등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용 증가가 내년에도 유지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전문직 비중이 높은 비대면서비스 업종은 2021년 상반기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취업자 증가폭의 상당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3~10월 평균 6만 명 증가하였고, 금융보험업은 2만 4천 명, 부동산업은 2만 1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6만 4천 명,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은 5만 7천 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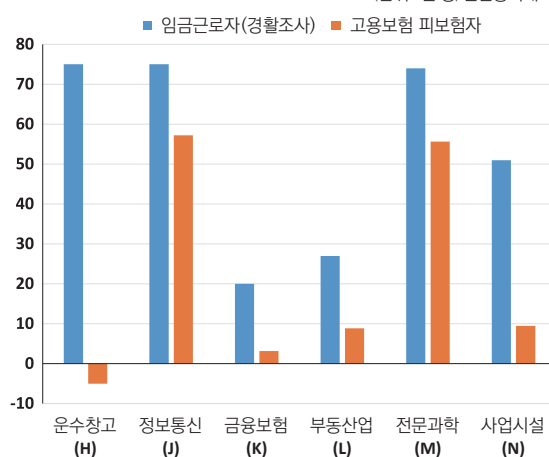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관리지원임대업의 경우 경찰조사에서의 임금근로자 증가폭에 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 취업자 증가폭 가운데 대부분이

판매직종에서 일하는 50대 임시직 여성에 해당한다. 운수창고업과 같이 향후 금융보험업의 영업상황이 나빠지면 일자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은 2021년 3~10월 평균 35만 명 증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업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주요 지원대상이었던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15~64세 연령대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6월 취업자 증가폭 33만 7천 명 중에서 15~64세는 17만 명이었으나, 7~10월 증가폭 36만 2천 명 중에 15~64세가 25만 8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림 9] 업종별 임금근로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 (2021년 3~10월)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심으로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시설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청년층 여성 중심으로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고령층 중심에서 15~64세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마지막으로 음악공연, 연극, 프로스포츠 관람, 미용실, 목욕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예술·스포츠, 기타개인서비스업 그리고 가구 내 고용 업종(산업분류상 R, S, T)은 하반기에도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상반기(3~6월)에 취업자가 7만 8천 명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7~10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방역이 강화되면서 취업자가 1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예술·스포츠·여가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기가 개선되고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III. 2022년 고용 전망

2021년은 코로나19발 고용충격으로부터 노동시장이 건조한 회복세를 보인 시기였다. 취업자 수가 증가로 돌아선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60만 명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취업자 감소분을 20만 명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월대비 계절조정계열로도 8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고용충격 발생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에 대비해서는 99.9%까지 회복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복 양상에 있어 영역·계층별로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경계해야 할 점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거시경제 상황에 있어 특이점이 발생치 않는다면, 금년 말까지도 고용 상황은 회복세가 이어져 2021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352천 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면서비스 중심의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 및 설비·건설투자 증가를 토대로 한국경제는 2021년 4.0%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한 뒤, 2022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비대면서비스의 활황세 유지 속에 2021년 취업자 증가를 견인해 온 건설업 역시 수주 및 착공물량 증가,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대면서비스업의 점진적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대내외적으로는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원자재 수급불균형과 글로벌 물류 차질이 지속되거나, 미중 간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등 하방 위험요인의 심화 여부에 따라 경제회복이 지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기의 전망요소를 반영하여 추산한 본원의 2022년 고용 전망은 다음과 같다.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심화, 글로벌 경제 및 내수시장 위축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22년 취업자 수는 24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하반기 고용 상황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회복에 있어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를 보인 2021년의 기저영향으로 2022년 상반기에 367천 명, 하반기에는 119천 명 증가하는 상고하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일별 신규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코로나19의 재유행 및 변이 발생이 고용 상황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수준이 감염병 발생 이전의 수준까지는 다다랐지만, 이전의 장기 회복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수 개선, 감염병 확산세 진정, 고용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어 고용 회복 추세가 2022년에도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표 4〉 2022년 고용 전망

(단위: %, 천 명)

	2021			2022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	26,918	27,595	27,256	27,285	27,714	27,500
(증가율)	0.4	2.2	1.3	1.4	0.4	0.9
(증감수)	119	585	352	367	119	243
실업률	4.5	3.1	3.8	4.3	3.1	3.7
고용률	59.8	61.1	60.5	60.2	61.0	60.6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22년 상반기 367천 명,
하반기 119천 명, 연간 243천 명
증가하는 상고하저 양상 전망

※ 본 「KLI 고용·노동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